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9. 25.(목) 11:00 < 9.26.(금) 조간 > 배포 2025. 9. 25.(목)

그린수소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제주) 참석-
- 산업부, 그린수소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9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현대자동차 등이 후원하는 금번 포럼에는 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주요국(독일, 덴마크, 태국 등) 대사관 등 9개국 106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석하여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및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산업부와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2017년 ▲250kW급 수전해 실증('17~'21, 상명)을 시작으로, ▲행원 3.3MW 수전해 단지('20~'24)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10.9MW 수전해 단지(~'27, 북촌)를 구축 中에 있다.

특히, 3.3MW 행원단지는 '24.9월부터 하루에 약 200kg의 수소를 생산하여 도내 수소버스(17대)와 수소 승용차에 공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내 첫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부는 제주도,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 대규모(50~ 100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실증사업은 새정부의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산업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22)

한편, 박덕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통해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협력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수소산업과	책임자	과 장	권현철 (044-203-3970)
		담당자	사무관	윤도경 (044-203-39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포럼 전체 행사계획**

일시/장소		한라홀	삼다홀
9. 24. (수)	13:00~14:30	-	제주 그린수소 신산업 육성 및 상용화 로드맵 구축 I
	15:00~16:30	그린수소 벨류체인 혁신: 저장·운송 글로벌 표준화	제주 그린수소 신산업 육성 및 상용화 로드맵 구축 II
9. 25. (목)	10:30~12:00	재생에너지 전력믹스의 미래: 제주 V2G, 전기를 넘어 연결의 기술로	기후위기, 그린수소에서 답을 찾다
	13:00~14:30	글로벌 라운드테이블(ICC Jeju 오션뷰)	
	13:00~14:30	학생 아카데미 [13:30~15:00]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 글로벌 정책 동향과 과제
	15:00~15:30	제주도-현대차그룹 업무협약식(ICC Jeju 오션뷰)	
	15:40~16:00	사전환담(VIP 룸)	
	16:00~17:45	개막식(한라홀)	
	18:00~19:30	만찬(ICC Jeju 오션뷰)	
9. 26. (금)	10:00~11:30	재생에너지 전력믹스의 미래: 그린수소와 무탄소전원	재생에너지 전력믹스의 미래: 열로 연결되는 탄소중립
	11:00~11:30	산업부 출입기자단 인터뷰(프레스센터)	
	11:30~12:30	오찬(델리지아)	
	13:00~14:30	국회수소경제포럼 특별세션 [12:30~13:30]	탄소중립 교통의 미래, 수소 모빌리티
	15:00~16:30	재생에너지 전력믹스의 미래: 제주에서 시작하는 세 가지 이야기	수소로 여는 탄소중립 도시